

# 許浚의 『諺解胎産集要』에 대한 연구

鄭 珉雅 · 金 南一<sup>1)</sup>

## A Study of Heo Jun's 『Eonhaetaesanjipyo』

Jeong Eun-ah · Kim Nam-II

The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is a branch of the Oriental Medicine that treat of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diseases of the female. The origin of the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begins at the pregnancy and delivery of the women. Therefore it has significant meanings about the birth of human beings. The field of this study has been very important to the Oriental Medicine.

Accordingly the present writer is planning to study of the level of the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its effects in those days, through Heo Jun(許浚)'s 『Eonhaetaesanjipyo』 (『諺解胎産集要』) that is a work of the Ori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 books in the history of Korean Oriental Medicine.

---

### I. 緒論

婦産科學은 여성 특유의 生理, 病理를 근간으로 여성의 질환들을 다루는 婦人科의 영역과 妊娠 및 出産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는 産科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은 생식기관이 남성과

---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다른 해부학적 특성을 가지며, 생리적으로 월경·임신·분만·수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월경병, 대하병, 임신병, 분만시 질환, 산후병, 유방질환, 외음부 질환 및 생식계통과 유광한 잡병 등이 부산과 질환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sup>2)</sup> 이러한 부산과학은 동양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니 곧 인류의 탄생부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부산과학의 관련 자료들은 거의 5-6천년 전에 형성된 殷墟 甲骨文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2천년 전 춘추전국시대에도 부산과에 속한 전문의와 그 전문서적의 존재를 살펴 볼 수 있다.<sup>3)</sup>

이 같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계된 문제는 비단 이전뿐만 아니라 현재도 인류의 중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저자는 韓醫學史에서 진정한 民族醫學의 수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東醫寶鑑』의 저자인 許浚이 『동의보감』을 집필하던 중에 출간한 『諺解胎產集要』를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부산과학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고찰을 한 후 『언해태산집요』의 편찬배경을 알아 보고, 그 구성과 내용면에서는 『東醫寶鑑·雜病編·婦人門』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 본 연구를 통해 당시 우리나라 부산과학의 수준과 『언해태산집요』가 후대 부산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本論

### 1. 우리나라 婦產科學의 歷史

우리나라에 한의학이 도입된 것은 고구려 평원왕3년(561)에 吳人 知聰이 『황제내경』을 가지고 온 것이 시초이며, 고구려말부터는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약교류도 점차 활발해졌다.<sup>4)</sup>

조선 건국후에는 사절들의 왕래와 함께 의인, 약재 및 의서의 교류가 한층 빈번하였으며 정책적으로 의학진흥에 많은 시책을 보게 되어,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외래의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주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커다란 업적을 세우게 되었다.<sup>5)</sup>

2) 한의부인과학 교재편찬위원회, 『韓醫婦人科學(上)』, 도서출판 정담, 2001, 서울, p.3

3) 조면희·박현국, 古代 婦產科의 醫史學的 研究, 대한원전외과학회지 Vol.9, 1995, pp.87-115

4) 송병기, 『漢方婦人科學』, 행림출판, 1998, 서울, pp.21-22

세종 15년(1433)에 완성한 『鄉藥集成方』은 病源, 鄉藥本草, 鍼灸法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 권54-56까지가 부산과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 노중례는 세종16년(1434)에 왕명으로 『胎產要錄』을 찬하였는데, 이는 조선 전기의 중요한 산과 서적으로 상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에 1608년에 허준이 이를 기본으로 하여 『언해태산집요』를 저술하게 되었다.<sup>6)</sup>

세종대왕은 『향약집성방』을 완성한 후 다시 한당 이래 송원시대에 이르는 대표적인 중요 방서 153종을 部門別로 類聚하는 작업을 착수해 세종27년(1445)에 『醫方類聚』 365권의 편성을 보게 되었다. 특히 부인과와 관련한 『金櫃要略』 『千金方』 『產寶』 『胎產救急方』 『格致餘論』 『局方發揮』 『婦人大全良方』 등의 중요한 문헌들이 모두 인용되어 있다. 전체 91大綱門 중 부인문은 29항목으로 세분되어 病論과 治方이 출전의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외 동시대에 간행된 부산과전문서로는 작자미상의 『産書』, 연산조의 『妊娠撮要方』 등이 있다.<sup>7)</sup>

태종조에는 의녀제도가 창설되어 주로 부인들의 질병치료에 종사하였으며 자연히 산부인과 적 치료와 간호에 많이 관여하였을 것이므로 『산서』나 『태산집요』 등에 언해가 붙어 있는 것은 이들에게 그 지식을 쉽게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8)</sup>

『醫林撮要』는 선조 초기에 楊禮壽 등이 저술하여 현종15년(1674)에 출간된 의서인데, 권1 1·권12가 부인과와 관련된 부분이다.<sup>9)</sup>

허준은 선조34년(1601)에 왕명으로 『태산집요』를 저술하여 선조41년(1608)에 『언해태산집요』를 간행하였다. 또 광해군2년(1610)에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는데, 「胞門」에서는 부인과 질환을 위주로 기술하고 있으며, 「부인문」에서는 산과 질환을 위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 「乳門」과 「積聚門」에서 유방관련 질환과 현대 부인과적 질환들이 언급되어 있다.<sup>10)</sup>

周命新은 1724년 『醫門寶鑑』을 저술하였는데, 권5권에 부인문을 두어 산과와 부인과 질환을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 康命吉의 『濟衆新編』과 黃度淵의 『醫宗金鑑』 등이 있다.<sup>11)</sup>

조선시대의 의사제도상 특징적인 것은 “産室廳(護産廳)”과 “의녀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의녀는 부산과 영역을 전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여성의 질병과 태산관리를 맡았다. 또 왕자나 왕손들의 출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완실에 산실청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부산과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sup>12)</sup>

5) 각주3) 『한방부인과학』 p.22  
 6) 각주1) 『한의부인과학(상)』 pp.4-5 ; 각주3) 『한방부인과학』 p.22  
 7) 각주1) 『한의부인과학(상)』 pp.4-5 ; 각주3) 『한방부인과학』 p.22  
 8) 각주3) 『한방부인과학』 p.22  
 9) 각주1) 『한의부인과학(상)』 p.5  
 10) 각주3) 『한방부인과학』 pp.22-24  
 11) 각주1) 『한의부인과학(상)』 p.5 ; 각주3) 『한방부인과학』 p.24  
 12) 각주3) 『한방부인과학』 p.24

## 2. 『諺解胎産集要』의 編纂背景

허준의 언해본인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는 편찬 연대와 간행시기가 거의 일치하는데, 이 3권의 언해본은 선조34년(1601)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同40년(1607), 41년(1608)에 간인된 의서로 『동의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허준이 왕명을 받아 『동의보감』을 집필하던 중에 이 언해본들을 편찬한 것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당시 임진왜란으로 인해 백성들은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여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1602년에는 함경도, 전라도에 여역 및 대소역, 대두운 등이 크게 발생하여 1604년까지 계속되었다. 전염병은 계속 돌아 장서에까지 번지게 되었고 조정에서는 계속해서 의관들을 보내었다. 더욱이 선조36년(1603)에는 왕세자 제2남과 왕녀가 두역으로 갑자기 죽게 되고 선조41년(1604)에는 왕마저 병환으로 눕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당시 의관이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의서 간행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그 결과 허준은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의 집필을 하고 있었으며, 또 당시 내의원에서도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의서들이 거의 산실되어 참고할 의서마저 없게 되자 내의원에서 독단적으로 활자, 종이, 비용 등을 구비하여 의서를 인쇄한다는 계를 올려 왕의 승낙을 받기도 하였다.

『언해두창집요』의 허준의 跋文에 “... 祖宗朝, 雖有瘡疹集, 刊行于世, 民不屑焉, 殆虛文耳, 昔歲, 王子染痘, 證勢不順, 而拘於俗忌, 未敢下藥, 醫官之輩, 袖手待盡, 自上痛念非命, 悔不用藥, 歲在庚寅之冬, 王子, 又染此疾, 聖上, 追憶往事 ...中略... 辛丑之春, 下教于臣曰, 平時有胎産集, 瘡疹集, 救急方, 刊行于世, 亂後皆無矣, 爾宜搜摭醫方, 以成三書, 予欲親覽焉耳, 出內藏古今醫書, 令其檢討, 以資撰集, 臣聞命, 祇慄夙夜, 靡遑, 纔閱歲而三書告畢投, 進之日, 又爲下教曰, 近歲, 痘疫未熄, 瘡疹集要, 爲最切, 爾略記其創藥之由, 以跋其尾, 予欲開刊傳布焉.”<sup>13)</sup>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써 언해본을 편찬 간행하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왕자, 왕녀의 두역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예방하자는 것과 또 하나는 선조조에 편찬한 『태산집』 『창진집』<sup>14)</sup> 『구급방』<sup>15)</sup>이 임진왜란으로 없어서 열람할 수 없으므로 인하

13)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冊』, 여강출판사, 1994, 서울, p.288

14) 『瘡疹集』: 이 책은 현재 망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일본 『聿修堂架藏醫書目』 중에 「瘡疹集 抄朝解本 任元濬 教撰」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세조때 任元濬이 찬한 창진에 관한 전문의서로 생각되고 있다.

→ 한의학고전연구소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한국의사문헌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94, 서울, p.68

15) 『救急方』: 조선 세조때 지어진 의서로 이 책에 관한 실록의 기록은 세조12년(1466)6월에

여 백성들에게 미치는 질병의 고통을 생각해서 왕명으로 편찬 간인된 것으로 보인다.

『언해태산집요』의 편성도 『언해두창집요』의 발문으로 볼 때 『태산집』의 영향하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태산집』이 盧仲禮의 『胎產要錄』과 동일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태산요록』<sup>16)</sup>은 세종16년3월에 판전의감사 노중례에 명하여 편찬 간행한 상하 2책이다. 상권에는 胎產門을 기술하였고 하권에서는 嬰兒의 보호법을 기술하였는데, 『언해태산집요』의 말미에 부록으로 있는 「初生小兒救急」이란 항목과 유사하다. 『태산집』은 中宗38년(1543)에 간행된 의서로 『中宗實錄』 권101 중종38년7월己未條에 보이는데, 이 『태산집』이 『태산요록』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이 『태산집』을 허준이 선조 때에 와서 그대로 언해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는 허준의 언해본에는 『醫學正傳』 『醫學入門』 등이 인용되었는데 『의학정전』은 正德乙亥年(중종 12년, 1515)에 간행되었으며, 『의학입문』은 萬曆庚辰年(선조 13년, 1580)에 간행된 의서인 것으로 보아 허준이 본래의 『태산요록』을 그대로 언해한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영향 하에 허준의 『언해태산집요』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결국 허준이 편찬한 언해본인 『언해태산집요』는 세종 때의 『태산요록』, 중종 때의 『태산집』의 영향 하에 편찬간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이들의 내용을 그대로 언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허준이 왕명을 받고 1601년부터 편집을 시작하여 『구급방』 『두창집요』 『태산집요』를 완성한 뒤 선조에게 올리자 다시 언해를 붙이라는 명을 받고 언해를 가하여 『언해구급방』은 1607년에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는 1608년에 내의원에서 간행 배포하게 된 것이다.

### 3. 『胎產集要』 諺解의 意義

한글창제 이후부터 개화기 이전에는 번역을 보통 언해라 불렀는데, 중앙에서만 간행되던 언

「8도에 『구급방』을 각각 2件씩 하사하였다.」라고 하였으며, 成宗10년(1479)2월에 「병조참판 金順命이 아뢰기를 일찍이 세조조에 『구급방』을 찬집하였으나 그 약재가 중국에서 산출되는 것은 백성이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鄉藥醫方을 찬집하여 민간에 널리 퍼기를 청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과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東洋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東洋醫學大辭典·권1』,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서울, p.578

16) 『胎產要錄』: 조선 세종16년(1434)3월에 판전의감사 盧仲禮가 편찬한 부인과 전문의서로 上下2권1책으로 되어 있으며, 상권에는 胞胎시의 敎養法을 상세하게 논하고, 하권에는 嬰兒의 보호, 육성법을 구체적으로 실어 鑄字所에서 간행. 조선시대 초기의 產書로 널리 쓰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후에 허준이 『태산집요』를 찬한 다음에는 그다지 활용되지 않았다. → 각주14) 『동양의학대사전·권10』 pp.311-312

해서가 16세기에 들어서는 지방에서도 간행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이후부터는 校正廳의 經書 諺解의 보급으로 인해서가 보편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언해의 확대는 한글을 보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문자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번역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의 향상과 학문의 발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유교경전, 불교서, 교화서, 기술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언해가 이루어졌다.<sup>17)</sup>

『언해대산집요』가 나온 것도 당시의 이런 분위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허준은 의서의 번역을 통해 당시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면서도 실제로 서민들이 보기가 어려운 의학지식을 보급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상과 같은 일차적인 목적과 함께 그 자신의 의학이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일면이 있다. 아랍의학이 독창적인 의학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로마 시대에 쓰여진 의학저술의 광범위한 번역작업에서 가능하였고, 기독교나 불교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그 경전의 번역이 있어 가능하였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또한 본서에서의 한글표기는 당시 17세기 초의 표기법으로 국어의 발전사를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라 사료된다. 본서가 17세기 초라고 하지만 본서의 편찬이 1601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6세기말에서 17세기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諺解胎産集要』의 板本

본서는 선조의 명을 받아 찬하여 선조41년(1608)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의서로 현재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본<sup>18)</sup>은 木版本으로 卷末에 「萬曆三十六年 正月 日 內醫院 開刊」, 「監校官通訓大夫內醫院直長臣李希憲」, 「通訓大夫行內醫院奉事臣李彳各」이라는 刊記와 官銜이 있다. 印記는 「帝室圖書之章」이라고 날인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sup>19)</sup>은 訓練都監字로 간행한 활자본으로 表紙裏面에 「萬曆三十六年 內

17) 安秉禧, 諺解의 史的 考察, 민족문화 제11집, 민족문화추진회, 1985, 서울, pp.7-26

18) 크기36.8×23.3cm이고, 四周雙邊(半郭24.7×17.2cm), 有界, 11행19자(한글)-20자(한자), 魚尾는 上下花紋魚尾, 소장청구기호-규181

→ 金重權, 許浚의 『諺解救急方』 『諺解痘瘡集要』 『諺解胎産集要』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42

19) 소장청구기호 귀-235한-68-88

賜行大司成金功諺解胎産集要 命除謝 恩 右承旨臣 朴(수결)」이라는 內賜記가 있다. 印記로는 「宣賜之記」라고 날인되어 있다. 卷末의 刊記에는 「萬曆三十六年 正月 日 內醫院 開刊」, 「監校官 通訓大夫 內醫院 直長」으로 되어 있고 監校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한독의약박물관본은 활자본을 후대에 覆刻한 목판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 목판본(『한국의학대계·33책』 20)을 기준판본으로 하면서 다른 판본들을 참고하였다.

## 5. 『諺解胎産集要』의 構成

본서는 序, 跋이 없고 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首에는 「諺解胎産集要조식비여난중요외 혼방」이라는 題署가 있다. 옆으로는 「御醫臣許浚奉 教撰」이란 撰者名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에는 임신에서 산후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법과 처방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他書を 인용한 뒤 그 인용서를 文頭나 文尾에 밝히고 있다. 卷末의 刊記와 官銜은 「萬曆三十六年 正月 日 內醫院 開刊」, 「監校官通訓大夫內醫院直長臣李希憲」, 「通訓大夫行內醫院奉事臣李彳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으로 『언해태산집요』는 총1권8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6. 『諺解胎産集要』의 內容

### 1) 『諺解胎産集要』의 目錄

『언해태산집요』는 48개 항목과 부록 1개 항목으로 총 4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産前諸證과 産後諸證에 있어서는 각각 1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20)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3冊』, 여강출판사, 1994, 서울, pp.137-299  
: 쪽수 표시도 『한국의학대계·33책』에 준하였다.

【丑1】『諺解胎產集要』目錄

- 
- 求嗣 諺解：固本健陽丹 五子衍宗丸 溫經湯(一名調經散) 調經種玉湯 女金丹(一名玉鑰啓榮丸) 百子建中丸(一名百子附歸丸) 戊戌酒 單方二 灸法一
  - 孕胎：十月胎形 ○ 胎脈
  - 驗胎：神方驗胎散 驗胎法 艾醋湯 ○ 辨男女法 無方
  - 轉女爲男法：單方六 ○ 惡阻：人參橘皮湯(一名參橘散) 白朮散
  - 禁忌 無方 ○ 將理 無方
  - 通治：芎歸湯(一名佛手散) 益母丸(一名濟陰丹) 返魂丹 四物湯
  - 安胎：獨聖散(一名安胎散) 膠艾湯 安胎飲 葱白湯 葱粥 治法一 單方一
  - 欲產候 無方
  - 保產：十產候 霹靂丹 如神散(一名神驗散) 催生如聖散(一名黑神散) 催生丹 三退散(一名催生散) 紫蘇飲(一名縮胎飲,一名達生散) 如聖膏 治法一 襪法三
  - 半產：芩朮湯 安胎丸 單方一 ○ 察色驗胎生死 無方
  - 下死胎：香桂散 治法二 單方一 ○ 下胞衣：治法二 襪法一
- 
- 產前諸證
- 子癇：羚羊角湯 愈風散(一名歸荊湯) ○ 子煩：竹葉湯 竹瀝湯 單方一
  - 子腫：鯉魚湯 全生白朮散 單方一 ○ 子淋：澤瀉湯 參朮飲 慰法一 手法二
  - 子痢：雞黃散 鴨子煎 單方一 ○ 子瘡：腥脾飲子 露薑飲
  - 子嗽：紫苑茸湯 百合散 單方一 ○ 子懸：葱白湯
  - 感寒：芎蘇散 葱白湯 ○ 不語：治法一
  - 兒在腹中哭：單方二 ○ 腹中鍾鳴：單方一
- 
- 產後諸證
- 兒枕痛：失咲散 紫金丸 黑龍丹 單方一 ○ 血暈：花藥石散 治法二 熏法一 吹法一
  - 血崩：單方一 ○ 衄血：犀角地黃湯 襪法一
  - 喘急：奪命散 小參蘇飲 ○ 咳逆：治法一 單方一
  - 不語：孤鳳散 七珍散
  - 發熱：柴胡四物湯 涼血地黃湯 治法一 單方一
  - 乳懸：治法一 ○ 陰脫：單方二
  - 過月不產：八物湯 ○ 下乳汁：立效方 猪蹄粥 治法一 單方一
  - 臨產預備藥物 無方
  - 貼產圖法：安產方位圖 安產藏胎衣吉方 借地法 月遊胎殺所在
  - 附初生小兒救急：治法二十
- 

2) 『諺解胎產集要』의 引用文獻



본서에서는 타서를 인용한 뒤 그 인용서를 文頭나 文尾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장을 여러 문헌에서 인용했을 경우 「諸方」이라는 인용문을 밝혀 놓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인용문헌만 밝히고 있으며, 또한 인용서를 기록할 때 본서와 『동의보감』과 인용내용이 동일한데도 서로 다른 인용서로 밝힌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인용서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본서의 인용 전거를 기술 하는 데는 서명을 밝히거나, 저자명이나 저자의 號나 字로 대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張仲景, 雲岐子, 王好古, 羅謙甫, 朱彥修, 丹溪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했다. 이와 같이 인용문헌의 서명대신 저자의 이름이나 호를 밝힌 경우에는 정확한 그 서명을 알기 어려우나, 본서가 『동의보감』을 편찬하던 중에 간행된 것으로 보아 『동의보감』의 인용문헌을 위주로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동의보감』의 인용문헌으로 보아 장중경은 『傷寒論』, 『金櫃玉函經』을, 왕호고는 『醫壘元戎』, 『醫家大法』, 『湯液本草』, 나검보는 『衛生寶鑑』, 단계는 『丹溪心法』을 주로 인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 중 윤기자의 저서는 『동의보감』에 인용된 의서가 없었다. 윤기자는 金代의 의가인 張元素의 號인데 그의 저작으로는 『脈談』, 『雲岐子脈法』, 『醫學新說』, 『傷寒保命集』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sup>21)</sup>

본서에서 인용된 의서를 조사해 본 결과, 『의학입문』 『의학정전』 등과 같은 明初의 의서들이 주로 인용되었고, 宋代 陳自明의 『부인대전양방』은 30회로 인용회수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이 『부인대전양방』은 『동의보감』의 인용문헌에 「婦人良方 本朝熊宗立所著號道軒」이라고 출처를 밝힌 곳으로 보아 明의 熊宗立에 의해 저술된 『부인양방』을 위주로 하였으리라 사료된다.

본서의 인용문헌은 총 38종으로 漢唐以前의 고전 의서인 『素問』, 『本草經』, 『脈經』, 張仲景의 『傷寒論』, 『產寶方』 등 5종, 宋元時代에는 『聖惠方』, 『和劑方』, 『活人書』, 『本事方』, 『婦人大全』, 『得效方』, 『丹溪心法(朱彥修)』 등의 대표적인 의서들이 14종 인용되었으며, 『醫學入門』, 『醫學正傳』 등 明初의 의서들도 9종 인용되었다. 국내 의서로는 『醫方類聚』, 『產書』 등 2종이 인용되었다. 이 중 『부인대전』이 30회, 『의학입문』이 28회, 『득효방』이 17회, 『본초경』이 16회, 『의학정전』이 15회, 朱彥修와 丹溪라고 표기된 것을 포함하여 『단계방』이 13회 인용되었다. 漢唐 이전의 의서인 『맥경』도 5회나 인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본서의 내용은 『부인대전』, 『의학입문』, 『득효방』, 『본초경』, 『의학정전』, 『단계방』 등이 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의서의 인용은 본서에서도 2종으로 여전히 거의 활용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廣嗣要語』<sup>22)</sup>는 明대 俞樾<sup>23)</sup>가 편찬한 의서로 전 1권인데 附方 1권이 또 있다. 책머리에

21)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서울, p.251

22) 『廣嗣要語』: 각주14) 『동양의학대사전·권1』 p.538

種子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다음에 五子衍宗丸 등 諸方에 대하여 기술한 책이다. 『簡易方』은 『易簡方』의 오자인지 아니면 다른 의서를 지칭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비슷한 서명의 『簡易備驗方』<sup>24)</sup>이라는 의서가 허준 이전에 간행된 적이 있다. 『附溪丹錄』은 『丹溪附錄』의 오자인 것을 사료되나 확실치 않다.

『金櫃方』은 『金櫃藥方』인지 『金櫃玉函經』을 이르는지 확실치 않다. 『금궤약방』은 葛洪의 저작으로 각가의 저작을 選集하고, 각지방에서 유전되는 경험방을 널리 수집하여 분류 편집한 것인데, 지금은 전하지 않는 의서이다.<sup>25)</sup> 『금궤옥함경』은 총8권으로 東漢의 장중경이 찬한 『상한론』의 고전본의 하나이다. 1066년에 北宋 校正醫書局의 교정을 거쳐 宋本 『상한론』과 동시에 간행된 저작이다.<sup>26)</sup>

또 인용서를 간략하게 표기한 경우가 많은데 『東醫寶鑑』의 인용문헌을 참고하면 『本草』는 『神農本草經』, 『産寶方』은 『經效産寶』, 『聖惠方』은 『太平聖惠方』, 『和劑方』은 『太平惠人和劑局方』, 『活人書』는 『南陽活人書』, 『本事方』은 『普濟本事方』, 『三因方』은 『三因極一病證方論』, 『婦人大全』은 『婦人大全良方』, 『濟生方』은 『嚴氏濟生方』, 『得效方』은 『世醫得效方』, 『袖珍方』은 『袖珍方大全』, 『活人心方』은 『臞仙活人心方』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언해태산집요』의 인용문헌 및 인용회수를 시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23) 俞橋 : 16세기 중국 명나라 때의 의학자, 호는 子木 또는 溯洄道人. 저서로는 『醫學大原』(亡失)과 『廣嗣要語』 등이 있다. → 각주14) 『동양의학대사전·권7』 p.554

24) 『簡易備驗方』: 『訂補簡易備驗方』 또는 『萬病驗方』이라고도 함. 16권. 명대 胡正心 등이 찬하였으며 1614년에 간행됨. 中風, 傷寒, 溫疫, 暑症 등 59類를 집록하여 각과병증의 單方, 驗方을 포괄함.

→ 각주20)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p.2

25) 홍원식,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소, 1987, 서울, p.120

26) 각주20)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p.24

27) 신순식, 『언해태산집요』에 관한 연구, 구암학보, 1996, pp.159-179

【표 2】 『診解胎產集要』의 引用文獻 및 引用回數

引用文獻·著者	時代	回數	引用文獻·著者	時代	回數
素問(黃帝內經)	戰國時代	2	袖珍方(袖珍方大全)	1391	1
本草(神農本草經)	秦漢時代	16	醫學綱目	1332-1401?	2
張仲景(傷寒論)	2C중-3C	1	活人心方(臞仙活人心方)	14C말?	1
脈經	3C경	5	醫學正傳	1515	15
產寶方(經效產寶)	852	2	醫學入門	1575	28
聖惠方(太平聖惠方)	992	1	種香仙方	1581	2
和劑方(太平惠民和劑局方)	1078	4	萬病回春	1587	5
活人書(南陽活人書)	1108	1	廣嗣要語	16C	3
本事方(普濟本事方)	12C중	4	古今醫監	16C말?	3
三因方(三因極一病證方論)	1174	3	朝鮮		
易簡方	12C말	2	醫方類聚	1443	1
婦人大全(婦人大全良方)	1237	30	產書	15C?	5
初虞世方	北宋?	1	其他		
濟生方(嚴氏濟生方)	1253	1	정方		1
得效方(世醫得效方)	1337	17	簡易方		1
雲岐子	13C	3	俗方		4
王好古·王海藏方	1210?-1310?	2	附溪丹錄		1
羅謙甫	1220?-1290?	1	金櫃方		1
朱彥修	1281-1358	3	全氏方		1
丹溪方(丹溪心法)	1481	7	湯氏方		1
丹溪附錄	1481	3	小兒諸方		1

### 3) 『胎產要錄』의 影響에 對한 考察

우리나라에서 부산과에 관한 최초의 내용은 『향양구급방』에서 보인다. 「婦人雜方門」에 임신 중 음식금기, 진통을 줄이며 아이를 낳는 법, 산후 잡병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들어 있다. 하지만 조선 초의 『의방유취』나 『향약집성방』에는 부산과에 관한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있다. 『의방유취』는 권207부터 권238까지 총 32권이 부산과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중 18권이 임신과 출산에 관한 내용이다. 전개순서는 진자명의 『부인대전양방』과 동일하며 총 78종의 의서를 인용하고 있다.

『향약집성방』은 권54부터 권66까지 총 13권이 부산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10권이 태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역시 순서는 『부인대전양방』과 같고 총 72종의 의서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방유취』와 동일한 인용문헌은 30여종에 불과하다. 또 『향약집성방』에는 『삼화자향약방』, 『향약간이방』, 『향약구급방』, 『본조경험방』 등 국내의 경험방을 다수 실었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가 편찬됨으로써 부산과에 관련된 의서가 제대로 갖춰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양이 방대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처방을 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산모와 주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 신생아의 관리라는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을 주기가 힘든 실정이었다. 따라서 『향약집성방』의 편찬자 중 1인인 노중례는 이 책을 편찬한 그 이듬해인 1434년에 『태산요록』이라는 간결한 책을 찬하였다.

『태산요록』은 세종16년(1434)3월에 판전의감사 노중례가 편찬한 부인과 전문의서로 상·하 2권1책으로 되어 있다. 상권에는 胎胎時의 教養法을 논하고 하권에는 영아의 보호와 양육법을 실어 주자소에서 간행되었다. 조선초기의 産書로 널리 쓰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허준이 『태산집요』를 찬한 다음에는 그다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그런데, 『언해태산집요』가 『태산요록』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언해태산집요』에는 서문이나 발문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대적으로 앞서 있고 『언해태산집요』가 나오기까지는 부산과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허준이 『태산요록』을 근거로 본인의 의학관을 전개시켜 나갔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태산요록』을 허준 본인의 의학관에 따라 편집 보완하여 『胎産集要』를 편찬하고 난 후 이것의 각 항목마다 언해를 달아 당시 일반서민들에게 의학지식을 보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태산요록』의 『언해태산집요』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3】와 같다.<sup>29)</sup>

28) 각주14) 『동양의학대사전·권10』 pp.311-312

29)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3冊』, 여강출판사, 1994, 서울, pp.1-136

【표 3】『胎產要錄』의 目錄

◎ 上卷 「胎產門」

胎教論 附惡阻/ 轉女爲男法 / 養胎謹慎法 / 妊娠逐月十二經脈養胎將息慎護法 / 食忌論 /  
胎教避忌產前將護 詳見『產書集錄』 / 十二月產圖 見『產書集錄』 /  
滑胎例 方藥見『產書集錄』 / 妊娠難產有五 / 楊子建產論 /  
推婦人行年法 詳見『產書集錄』 / 產寶諸方產婦衣色及首指并起日法 /  
推日遊神法 / 日曆法 / 體育子借地法 / 禁草法 / 禁水法 /  
入月豫備藥物 詳見『產書集錄』 / 將護產婦 / 產後食忌並調護法 / 產後避忌

◎ 下卷： 嬰兒將護門

舉兒法 / 試口法 附試眼/ 治不啼法 / 斷臍法 / 初生洗兒法 / 與甘草汁法 / 與朱蜜牛黃法 /  
藏胞衣法 / 擇乳母法 / 乳兒法 / 乳母忌慎法 / 三朝浴兒法 / 裹臍法 / 衣兒並養護法 /  
刺泡法 / 治重舌法 / 治重齶重斷法 / 初生兒防撮口着噤及鵝口重齶法 附取豬乳 /  
小兒始哺法 / 治小兒穀道無穴法 / 通便法 / 治不成肌肉法 / 小兒變蒸 /  
小兒客忤並雜記 / 小兒食忌 / 小兒受氣法 / 剃頭法 / 小兒行遲

세종 때의 『태산요록』은 임신과 출산, 소아건강이 같은 비중으로 각각 1권씩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전문적인 의학 내용이라기보다는 산모나 그의 가족과 이웃이 알아야 할 지식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의학적인 내용은 분만 때 갖춰야 할 약물이나 신생아의 병에 대한 단방위주의 처방들이 대부분이고, 좀더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產書集錄』 또는 『產書』를 참고하라고만 기술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三木榮은 『산서집록』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으나, 이 책은 『의방유취』나 『향약집성방』에서 태산학 관련내용만 가려 뽑아 엮은 책으로 추정된다.<sup>30)</sup> 『산서』는 세종12년(1430)12월에 의원과 의녀를 위하여 간행되어 세조 때(1464) 기록에 당시 태산학에 관한 책으로 『부인대전양방』과 『산서』등이 두 의서를 뽑은 기록과 선조 초기에 언해본이 나와 의녀를 위한 교육과 임상에 크게 기여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1)</sup>

이상으로 볼 때 『언해태산집요』는 『태산요록』과 함께 간편한 내용으로 대중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두 책의 성격이 비슷하지만 책의 구성과 내용 면에서는 『언해태산집요』가 더욱 의학적 처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언해태산집요』가 의학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처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일반적

30)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1, 서울, p.264

31) 안덕균, 『세종시대의 보건위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서울, p.69 ; 각주14) 『동양의학대사전·권10』 p.264

인 태산문화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산모의 음식금지, 태아를 죽이는 방향을 피하기, 출산할 곳의 방위, 안전한 출산을 위한 주문 등은 이전부터 많은 의서에서 다루어 왔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본서에서도 간략하게나마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언해태산집요』에는 빠져 있는 『태산요록』의 내용들은 오히려 『동의보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 4) 『諺解胎産集要』와 『東醫寶鑑·雜病編·婦人門』과의 比較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잡병편·부인문』을 비교하면 그 목차 구성이나 내용이 아주 비슷하다. 『동의보감』을 집필하던 중에 본서 『언해태산집요』와 그 외 두 권의 언해본이 급히 간행되었음을 보아도 이미 집필되어 있던 부분을 손질하고 민간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해한 요약 정리본의 의미가 짙다고 할 수 있다.

『언해태산집요』는 상기한 바와 같이 총 4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의보감』은 80개의 항목으로 본서보다 31개의 항목이 더 많았다.

『언해태산집요』에 없는 『동의보감』의 내용을 목록만으로 본다면, 相女法·雙胎品胎·瘦胎令易産·催生宜用滑利藥·産後見鬼譫妄·鬱冒·産後風痙·産後頭痛·産後心腹腰脇痛·産後嘔逆·産後淋瀝遺尿·産後泄痢·産後大便秘結·産後浮腫·産後脈法·産後治法·産後虛勞·斷産·寡婦師尼之病異乎妻妾·臟燥證·婦人雜病·催生符·日遊胎殺所在·房中日遊神所在·推婦人行年法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동의보감』에 있지만 본서에는 빠져있는 내용은 반복되는 부분이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가 필요한 위급하거나 중한 병증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雙胎品胎’와 같은 다태아의 경우는 생기는 확률도 낮지만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는 임신중에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출산시에도 전문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다, 그래서 일반 서민층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언해본에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産後見鬼譫妄·臟燥證’ 등과 같이 정신적인 이상을 보이는 병증, ‘鬱冒·産後風痙’ 등과 같이 응급을 요하는 위급한 병증, ‘産後嘔逆·産後淋瀝遺尿·産後泄痢’ 등과 같이 산후에 기혈이 허한 상태에 嘔吐·下利 등으로 極虛에 빠질 수 있는 병증 등은 전문적인 의사가 필요한 상태로 보고 본서에는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맥법에 있어서도 개략적인 것만을 기술하고 병증에 따른 상세한 맥법은 대체로 생략이 되어 있는 것과, 『동의보감』에서는 상세한 病機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治법을 제시하고 처방을 나열하는데 반해 『언해태산집요』에서는 병기나 治법을 주로 생략하고 단순한 증상과 몇몇 처방의 나열식이라는 것을 보아도 본서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의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에서 본서를 편집한 결과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의 목록에서 차이가 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瘦胎令易産·催生宜用滑利藥’ 등은 계속 반복되는 원리인데 『동의보감』에서는 다양한 처방들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들을 추가했으나 『언해태산집요』에서는 민간에서 구하기 쉬운 약재들로 구성된 간단한 처방들을 몇 개 기술해 이용하기 좋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催生符·日遊胎殺所在·房中日遊神所在·推婦人行年法’ 등은 민간신앙으로 볼 수도 있는데 ‘易’이나 ‘巫’라는 것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언해태산집요』에서는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소개하는 정도로 그쳤다.

그 외에 두 의서를 비교해 보면 동일한 인용서에서 인용한 문장이어도 허준의 의도에 따라 문장이 재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동의보감』의 부인문의 문장보다 『언해태산집요』에서 좀 더 간략하고 요점만을 정리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서의 처방들이 동일한 증세에 동일한 인용서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 처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허준의 의학관에 따른 의서들의 재해석이라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으로 볼 때 『언해태산집요』는 『동의보감』을 집필하던 중에 이미 집필된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다는 측면과 시기적으로 보아 『언해태산집요』가 먼저 개간된 점을 고려한다면 『동의보감』이 『언해태산집요』를 근간으로 「부인문」을 완성하였다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사실이 일방적인 선후관계가 성립되기 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두 의서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諺解胎産集要』가 後代에 미친 影響

『언해태산집요』는 『부인대전양방』이나 『향약집성방』 『의방유취』의 태산관련 부분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 하지만 본서는 구성의 간결함과 요령 있는 이론과 처방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우수성이 있다 하겠다. 구성은 간결하지만 임신, 태아양육법, 분만과 산전·산후관리 등 제반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의학지식과 처방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언해태산집요』가 부녀를 비롯한 민간 층의 태산지식 확립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해태산집요』는 『동의보감』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의보감』을 집필하던 중에 『언해태산집요』가 내의원에서 개간되었다는 것과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잡병편·부인조』의 목차 구성과 그 내용이 유사한 것을 볼 때, 『언해태산집요』를 근간으로 하고 거기에 수정, 보완하여 『동의보감·잡병편·부인조』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언해태산집요』가 독립적인 한권의 의서로 개간이 되어 그 내용이 빠짐없이 다시 『동의보감·잡병편·부인조』에 옮겨져 있다. 이로 인해 『동의보감』은 다른 의서와는 달리 ‘산과’와 ‘부과’의 영역을 따로 구분지었다는 특징이 있다. 『의방유취』의 경우 부인과에 해당하는

『經·帶·胎·産』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부인문」을 이루고 있는 반면, 『동의보감』은 「부인문」에 「胎·産」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胞門」에 「經·帶」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이 산과와 부과를 구분지어 편성을 하게 된 데는 먼저 『언해태산집요』가 완성되어 독립적인 한 영역을 구축하게 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동의보감』이 편찬이후 현재까지도 의학사나 실제 임상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언해태산집요』 또한 태산관련 부분에서 좀 더 서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태산학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II. 結論

예로부터 열 사람의 丈夫를 치료하기보다 한 사람의 婦人을 치료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이는 그만큼 여성 특유의 생리와 병리가 남성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질병을 야기하고 그 치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부산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한의학이 고구려에 도입된 이래로,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중국의학과 민족고유의 의학이 융화하여 발전되어 왔다. 1610년 『동의보감』이 허준에 의해 완성됨으로써 중국 의학으로부터 자주적 체계의 민족의학정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저자는 허준에 의해 편찬된 태산학에 관한 의서인 『언해태산집요』의 고찰을 통해 부산과학에서의 자주적 성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언해태산집요』는 선조의 명을 받아 찬하여 선조41년(1608)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의서로 현재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는 序, 跋이 없고 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본문에는 임신에서 산후에 이르기까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법과 처방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총 1권 8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언해두창집요』의 허준의 跋文을 통해 언해본을 편찬 간행하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린이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예방하자는 것과 또 하나는 선조조에 편찬한 『태산집』, 『창진집』, 『구급방』이 임진왜란으로 없어져 열람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미치는 질병의 고통을 생각해서 왕명으로 편찬 간인된 것으로 보인다.
3. 『언해태산집요』의 인용문헌은 총 38종인데 그 중 『부인대전』이 30회, 『의학입문』이



28회, 『득효방』이 17회, 『본초경』이 16회, 『의학정전』이 15회, 朱彦修와 丹溪라고 표기된 것을 포함하여 『단계방』이 13회 인용되었다. 결과적으로 본서의 내용은 『부인대전』, 『의학입문』, 『득효방』, 『본초경』, 『의학정전』, 『단계방』 등이 추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의서의 인용은 본서에서도 2종으로 여전히 거의 활용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4. 세종16년(1434)3월에 판전의감사 노중례가 편찬한 『태산요록』을 허준 본인의 의학관에 따라 편집 보완하여 『태산집요』를 편하고 난 후 이것의 각 항목마다 언해를 달아 『언해태산집요』가 간행되었고 본서는 당시 일반서민들에게 의학지식을 보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언해태산집요』는 『태산요록』과 함께 간편한 내용으로 대중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두 책의 성격이 비슷하지만 책의 구성과 내용면에서는 『언해태산집요』가 더욱 의학적 처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5.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잡병편·부인문』의 목록을 비교하면 『언해태산집요』는 48개 항목과 부록 1개 항목으로 총 4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産前諸證과 産後諸證에 있어서는 각각 1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동의보감』은 80개의 항목으로 본서보다 31개 항목이 더 많았다.
6.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잡병편·부인문』에서 동일한 증세에 동일한 인용서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 처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와 동일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다른 인용서로 밝히거나 아주 인용서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 한편 동일한 인용서에서 인용한 문장이어도 허준의 의도에 따라 문장이 재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동의보감·잡병편·부인문』의 문장보다 『언해태산집요』에서 좀 더 간략하고 요점만을 정리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서의 처방들이 동일한 증세에 동일한 인용서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그 처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허준의 의학관에 따른 의서들의 재해석이라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7. 『언해태산집요』가 독립적인 한권의 의서로 개간이 되어 그 내용이 빠짐없이 다시 『동의보감·잡병편·부인조』에 옮겨져 있다. 이로 인해 『동의보감』은 다른 의서와는 달리 ‘산과’와 ‘부과’의 영역을 따로 구분지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동의보감』이 산과와 부과를 구분지어 편성을 하게 된 데는 먼저 『언해태산집요』가 완성되어 독립적인 한 영역을 구축하게 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8.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잡병편·부인문』을 비교하면 그 목차 구성이나 내용이 아주 비슷하다. 그런데 『동의보감』이 편찬이후 현재까지도 의학사나 실제 임상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언해태산집요』 또한 태산관련 부분에서 좀 더 서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태산학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IV. 參考文獻

- 許浚, 『諺解胎產集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3冊』 「胎產要錄」, 여강출판사, 1994, 서울
-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3冊』 「諺解胎產集要」, 여강출판사, 1994, 서울
- 金信根 主編, 『韓國醫學大系·37冊』 「諺解痘瘡集要」, 여강출판사, 1994, 서울
-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2001, 서울
- 李梴, 『編註醫學入門·婦人小兒外科篇』, 대성문화사, 1986, 서울
- 虞搏, 『醫學正傳』, 성보사, 1986, 서울
- 신동원, 『조선사람 허준』, 한겨레신문사, 2001, 서울
- 홍원식,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소, 1987, 서울
- 안덕균, 『세종시대의 보건위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5, 서울
- 東洋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東洋醫學大辭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9, 서울
- 한의학고전연구소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한국의사문헌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94, 서울
-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의사문헌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서울
- 조면휘·박현국, 古代 婦產科의 醫史學的 研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9, 1995
- 신순식, 『언해태산집요』에 관한 연구, 구암학보, 1996
- 安秉禧, 諺解의 史的 考察, 민족문화 제11집, 민족문화추진회, 1985, 서울
- 金重權, 許浚의 『諺解救急方』 『諺解痘瘡集要』 『諺解胎產集要』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